벤투호, 오늘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한국축구 16강 분수령

오후 10시 가나와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
'1차전 결장' 황희찬, 출격 가능성…수비수 김민재는 불투명
'1패' 가나, 총력전 예고…韓 역대 월드컵 '2차전 무승' 징크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 등 대표팀이 26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에 나서고 있다.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분수령이 될 가나전을 앞두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를 상대로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한국은 포르투갈(1승 승점 3)에 이어 우루과이(1무 승점 1)와 공동 2위에 자리했다.

포르투갈에 2-3으로 패한 가나(1패 승점 0)는 최하위다.

국제축구연맹(FIFA) 61위로 H조에서 순위가 가장 낮은 가나는 벤투호가 1승 제물로 삼은 상대다. 전통의 강호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제외하면 결국 서로가 1승 상대로 보고 있는 셈이다.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지만 16강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한다.

역대 전적은 6전 3승3패로 팽팽하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4년 6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선 0-4로 완패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 등 기대이상의 경기력으로 기대감을 키웠다.

1차전에서 결장한 황희찬(울버햄튼)이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왼쪽 햄스트링 이상으로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던 그가 가나와 경기를 앞두고 이틀 전부터 정상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벤투호 체제에서 붙박이였던 황희찬이 복귀한다면 공격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수비는 변수가 있다. 핵심 중앙수비수 김민재(나폴리)가 종아리 부상으로 우루과이전 이후 이틀 동안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다.

호텔에 남아 휴식과 치료에 집중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마지막까지 출전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정상급 수비수로 자리매김한 김민재가 빠진다면 수비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김민재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김영권(울산)이 중앙수비 한 자리를 책임지고, 권경원(감바오사카) 혹은 조유민(대전)이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나의 뒷공간을 공략하고, 역습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포르투갈은 가나를 상대로 고전하다 후반에 역습 속도를 높여 3골을 만들었다. 가나 수비진이 전진한 틈을 이용해 뒤로 찔러준 패스가 적중했다.

벤투호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 손흥민(토트넘)이라는 최정예 역습 무기가 있다. 황희찬까지 합류한다면 역습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승리가 절실한 가나가 지나치게 공격 지향적인 운영을 한다면 반대로 수비에서 많은 공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나는 이번 대회를 겨냥해 이냐키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타리크 램프티(브라이튼)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귀화 영입했다.

윌리엄스는 스페인 출신으로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국가대표 경력까지 있는 선수다. 2022~2023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5골을 넣고 있다.

수비수 램프티는 잉글랜드 태생으로 역시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로 뛴 적이 있다.

선수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반대로 팀 분위기를 해칠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가나가 초반부터 헤맬 경우, 스스로 무너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2차전 무승' 징크스가 있다. 역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4강 신화를 썼던 2002 한일월드컵에서도 미국과 1-1로 비겼고,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10 남아공월드컵에선 아르헨티나에 1-4로 완패했다. 징크스를 깨며 16강 진출의 청신호를 켤 수 있을지 흥미롭다.

뉴시스

가나전 앞둔 벤투호… '황소'는 돌아왔지만, '괴물'이 사라졌다

햄스트링 회복 공격수 황희찬 출격 준비
종아리 다친 수비수 김민재는 훈련 제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희찬, 이강인이 26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도하 알 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 두 번째 상대인 가나전을 앞둔 벤투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황소' 황희찬(26·울버햄튼)은 돌아왔지만, '괴물' 김민재(26·나폴리)는 사라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치른다.

지난 24일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한국이 가나를 잡으면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다만 한국 축구는 역대 월드컵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징크스를 깨야 한다.

햄스트링(허벅지 뒤근육) 부상으로 1차전에 뛰지 못한 공격수 황희찬의 복귀는 반가운 소식이다.

25일 사이클과 러닝 훈련 등으로 회복을 알린 황희찬은 가나전을 이틀 앞둔 26일 팀과 함께 몸을 풀며 컨디션이 올라왔음을 알렸다.

특히 공을 활용한 훈련을 소화하며 가나전 출격이 유력해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튼에서 뛰는 황희찬은 벤투호의 붙박이 주전으로 뛰어왔다. A매치 통산 49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이다. 올해는 6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황희찬이 돌아온다면 공격진의 속도와 힘은 더 올라간다.

다만 카타르 입성 후 팀 훈련을 오랜 기간 함께하지 못했고,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 재발 우려가 커 선발보다 교체에 무게가 실린다.

벤투호는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황희찬의 빈자리를 나상호(서울)로 대신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경기력과는 큰 상관없이 대표팀에 자주 오르내리며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나상호는 우루과이전에서 맹활약하며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워낙 컨디션이 좋아 나상호가 가나전에서도 2선 한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크다. 벤투 체제에서 A매치 25경기 2골밖에 없지만, 왕성한 활동량은 큰 무기다.

반면 우루과이전에서 종아리를 다친 주전 수비수 김민재는 이틀 연속 팀 훈련에 불참하며 우려를 낳았다.

우루과이전 다음날 회복 훈련에 불참한 데 이어 가나전을 이틀 앞두고 또 훈련에 빠졌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틀 연속 휴식을 취했음에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가나전을 앞두고 하루 밖에 발을 맞춰볼 수 없는 건 분명 마이너스 요소다.

한국의 '1승 제물'로 꼽히는 가나는 수비적으로 허점을 드러냈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과 속도를 앞세운 공격은 매우 위협적이다.

유럽 빅리거가 다수 포진한 포르투갈 수비진을 상대로도 2골을 뽑아냈다.

만약 김민재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경기에 뛸 수 없다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김민재는 A매치 통산 45경기를 뛰었다. 올해 여름 페네르바체(튀르키예)에서 나폴리(이탈리아)로 이적해 2022~2023시즌 세리에A에서 14경기(2골)를 뛰며 팀의 선두 질주를 도왔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하면, 공식전 20경기를 소화했다.

한편 가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1위로 H조 팀 중 가장 낮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냐키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타릭 램프티(브라이튼) 등 귀화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키웠다.

KIA, FA 박동원 보상선수로 김대유 지명

"불펜 요원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LG 트윈스와 계약한 포수 박동원(32)의 보상 선수로 좌완 투수 김대유(31)를 지명했다.

부산고를 졸업하고 2010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 입단한 김대유는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KT 위즈를 거쳐 2020년부터 LG에서 뛰었다.

김대유는 2021~2022년 LG의 핵심 불펜 요원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64경기에서 4승 1패 24홀드 평균자책점 2.13의 성적을 거뒀고, 올 시즌에는 59경기에서 2승 1패 13홀드 평균자책점 2.04를 기록했다.

1군 무대 통산 성적은 162경기 6승 3패 37홀드 평균자책점 3.44다.

KIA는 "좌완인 김대유는 구위와 무브먼트가 뛰어나 좌타자 뿐만 아니라 우타자 상대로도 강한 면모를 보였다. 접전 상황에 등판할 수 있고, 1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불펜 요원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KIA에서 뛴 박동원은 2022시즌을 마친 뒤 FA가 돼 LG와 4년간 총액 65억원(계약금 20억원·연봉 총액 4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박동원은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 FA다.

A등급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 200%와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LG로부터 보호선수 명단을 넘겨받은 KIA는 김대유를 선택해 불펜을 강화했다.

기사회생 메시 "진짜 아르헨티나로 다시 돌아왔다"

멕시코전 후반, 왼발 슛으로 골문 구석 뚫어…골득실 앞선 조 2위

26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경기, 2대 0으로 경기가 종료되자 메시가 기뻐하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라스트 댄스'를 꿈꾸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가 멕시코전 승리 후 사우디아라비아전 패배의 충격을 딛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메시는 27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 선발로 나와 선제 결승골로 아르헨티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막혀 고전하던 메시는 후반 19분 상대 페널티박스 외곽 정면에서 공을 잡은 뒤 빠른 왼발 슛으로 멕시코 골문 구석을 갈랐다.

메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반전부터 밀어붙였고 후반전부터 주도권을 쥐고 그라운드 전체를 장악했다"며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승리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우디전 패배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치러야 한다.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3위 사우디와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조 2위로 올라섰다. 첫 경기 사우디전에서 1-2로 역전패하며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던 아르헨티나는 이날 승리로 한숨을 돌렸다.

아르헨티나는 다음달 1일 조 선두인 폴란드(승점 4·1승1무)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6강 진출 확정을 노린다.

뉴시스